

신조선가치수 상승 & 피팅의 실적 하강 구간

코멘터리

대표 차트

수주설은 ...

- ① Vale가 VLOC 12척의 COA 입찰을 시작해, 배타적으로 10개 선사만을 초청했습니다. 각 선사들은 한국, 중국, 일본 조선사와 짝을 이뤄 경쟁할 예정입니다. 한국 선사와 조선사의 수주를 기대합니다.
- ② 인도네시아 Tanguh LNG의 Train3 확장에 따라, LNG선 신조 초기 협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3.8MTPA의 다수가 자국 수요, 인근국 수출이기 때문에 LNG선 발주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듯 합니다.
- ③ 법정관리에서 회생한 STX조선이 올해 4번째 수주, MR 탱커 2+2척을 추가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투자자들은 경쟁이 사라진 MR탱커 신조 시장을 기대했기 때문에 STX의 수주가 다소 우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경쟁사들이 도산했고 STX의 캐파도 많이 줄었습니다. 업황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신조선가치수가 1p 올랐습니다.

④ 10주만에 신조선가치수가 1p 올라 124p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파나막스 벌크선 선가가 2% 올랐을 뿐이고 최근 3주간 몇몇 선종/선형 신조선가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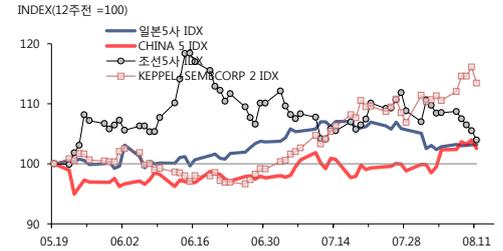
탈원전, 그리고 이에 준비하는 ESS, 신재생 관련 뉴스들을 좀 더 보게 됩니다.

- ⑤ 청와대와 더민주에서 탈원전 플랜B라는, 소위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하되 고리1호기 다음의 노후 원전 1~2기를 폐로할 것이라는 언론사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TF를 만들어, 탈원전 로드맵 실무의 자료 및 정책에 대한 소동/홍보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 ⑦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면서 모든 공공기관에 ESS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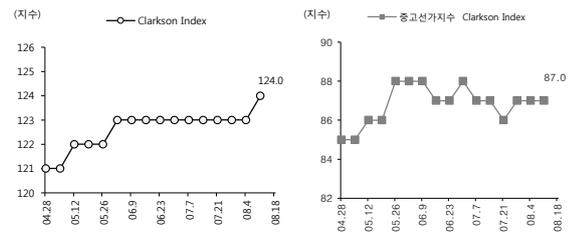
금요일 다수 회사의 실적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⑧ 피팅은 하이록코리아만 매출이 YoY 성장했고 19.6%의 놀라운 OPM을 유지했습니다만, 성광벤드와 태광은 매출이 YoY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익단은 성광벤드가 4Q16부터 영업적자를 지속 중이고, 태광은 OPM 1.5%로 전분기대비 -0.9%p 이익률이 하강했습니다. 조선의 매출절벽과 궤를 같이해 2019년 상반기까지 매출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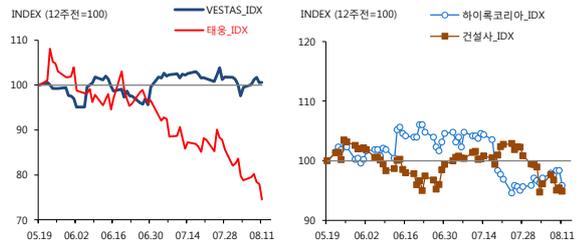
한/중/일/싱 주가 추세: 시장 강세에 한국 조선도 아웃퍼폼



신조선가치수 & 중고선가치수 보합



낙폭과대 기계 종목



▶ 피팅3사 2Q17 실적: 하이록코리아만 YoY 매출 성장하고 opm도 19.6% 기록 & 피팅2사는 조선 등의 업황침체를 받음

성광벤드 2Q17 Review											20170810			(십억KRW, %)		
	2Q16	3Q16	4Q16	1Q17	2Q17P@	y-y	q-q	컨센서스@	GAP(@/B-1)	2016	2017E	2018E	2019E			
매출액	53.2	48.0	47.1	35.0	40.4	-24.0%	15.5%	41	-0.4%	203.1	154.7	172.0	187.5			
영업이익	1.7	0.0	-1.6	-1.1	-2.0	적전	적지	-1	124.7%	2.9	-5.0	2.7	2.0			
세전이익	2.5	-2.4	3.9	-5.1	-0.4	적전	적지	1	-158.3%	6.1	-6.0	5.0	4.0			
순이익	1.8	-1.9	3.1	-3.9	-0.3	적전	적지	1	-165.0%	4.6	-4.5	4.0	4.0			
영업이익률	3.3%	0.1%	-3.5%	-3.2%	-5.0%	-8.3%p	-1.8%p	-2.2%	-2.8%p	1.4%	-3.2%	1.6%	1.1%			
세전이익률	4.6%	-4.9%	8.3%	-14.7%	-0.9%	-5.6%p	13.8%p	1.6%	-2.6%p	3.0%	-3.9%	2.9%	2.1%			
순이익률	3.4%	-4.0%	6.5%	-11.1%	-0.8%	-4.2%p	10.3%p	1.2%	-2.0%p	2.2%	-2.9%	2.3%	2.1%			

태광 2Q17 Review											20170810			(십억KRW, %)		
	2Q16	3Q16	4Q16	1Q17	2Q17P@	y-y	q-q	컨센서스@	GAP(@/B-1)	2016	2017E	2018E	2019E			
매출액	63.0	59.6	62.8	48.9	50.4	-20.1%	2.9%	48	6.0%	244.8	193.3	205.3	207.5			
영업이익	4.2	0.2	-1.2	1.2	0.8	-81.9%	-35.7%	0	154.0%	3.7	1.7	4.7	5.0			
세전이익	4.9	-4.7	7.9	-5.8	3.7	-23.2%	적전	2	59.0%	10.3	0.5	6.5	8.0			
순이익	3.7	-3.6	6.0	-5.5	4.0	7.5%	흑전	2	119.9%	7.9	-0.3	5.7	7.0			
영업이익률	6.7%	0.3%	-1.9%	2.4%	1.5%	-5.2%p	-0.9%p	0.6%	0.9%p	1.5%	0.9%	2.3%	2.4%			
세전이익률	7.7%	-7.9%	12.6%	-11.8%	7.4%	-0.3%p	19.2%p	4.9%	2.5%p	4.2%	0.3%	3.2%	3.9%			
순이익률	5.8%	-6.1%	9.6%	-11.2%	7.9%	2.0%p	19.1%p	3.8%	4.1%p	3.2%	-0.2%	2.8%	3.4%			

하이록코리아 2Q17 Review											20170809			(십억KRW, %)		
	2Q16	3Q16	4Q16	1Q17	2Q17P@	y-y	q-q	컨센서스@	GAP(@/B-1)	2016	2017E	2018E	2019E			
매출액	45.5	40.9	46.8	47.0	48.3	6.1%	2.7%	40	21.9%	177.1	167.0	161.0	167.0			
영업이익	9.8	8.1	10.2	9.9	9.5	-3.6%	-4.4%	8	26.3%	37.3	32.0	29.0	31.0			
세전이익	10.4	5.2	14.9	5.8	13.3	28.4%	130.3%	9	54.1%	39.9	32.0	31.0	33.0			
순이익	7.5	3.6	11.6	4.4	10.2	36.1%	131.3%	7	56.8%	30.2	24.0	23.0	25.0			
영업이익률	21.6%	19.8%	21.7%	21.1%	19.6%	-2.0%p	-1.5%p	18.9%	0.7%p	21.0%	19.2%	18.0%	18.6%			
세전이익률	22.8%	12.7%	31.9%	12.3%	27.6%	4.8%p	15.3%p	21.9%	5.8%p	22.5%	19.2%	19.3%	19.8%			
순이익률	16.5%	8.8%	24.8%	9.4%	21.1%	4.6%p	11.7%p	16.4%	4.7%p	17.1%	14.4%	14.3%	15.0%			

주식 뉴스

※ 상세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 참조

▶ 수주설

- ▲ 또 Rig 용선 계약 2개 추가한, Transocean 시황 바닥 느낌 피력
- △ VALE, 12척 VLOC 신조 발주 개시 | ▲ Socatra → STX조선, MR 2+2척
- △ Tangguh Train 3 확장에 따른 LNG선 신조 협의 시작

▶ 탈원전

- ▷ 탈원전 플랜B...당·청, 출구전략 검토 → ▷ 청와대 부인
- △ 202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 ESS 설치
- △ 한국카본, 탄소소염류 풍력 블레이드 소재 국산화

ASP & 실적관련(국내외)

▽ Clarksons 신조선가치수 파나마식 벌크 상승 따라 1p 상승

- 파나마식 벌크선이 \$0.5m 오른 \$24.5m을 기록했고 클락스 신조선가치수도 1p 오른 124p를 기록: 10주만의 신조선가 상승
- 중조선가치수는 3주 연속 전선중 선가가 제자리였고 지수도 87p 제자리

△ 삼성중공업, Shell의 Appomattox hull 출항

- 삼성중공업 거제 야드에서 GOM으로 Shell의 Appomattox hull 출항
- 4개 column의 semi-submersible unit이 Cosco의 heavy transport vessel에 실림
- Hull 제작 완료로 Appomattox 전체 기성은 60%를 달성한 것으로 전함
- Appomattox는 125,000톤, 175천/일 생산용량으로, Shell이 79%, 나머지 21%를 Nexen이 보유, 2020년 첫 오일 생산
- 한편 Shell은 사업 승인 이후, 원가를 20%나 절감해 사업의 손익분기점(BEP)는 \$50/br로 떨어졌음

▽ 현대중공업 '지체상금 1천억원 폭탄'... 해군 함정 3척 줄줄이 납품지연

<http://nr.ii.zmmj>

- 해군함정의 납품지연으로 2000억원에 달하는 지체상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임
- 1) 19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14급 잠수함(SS-II) 5번함 '윤봉길함'을 진수하고 2015년 12월까지 해군에 인도하기로 했지만, 추진계통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면서 수중에서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해 인도가 전면 보류
- 방사청은 잠수함이 납기일보다 185일 늦게 인도됨에 따라 지체상금만 3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 2) 기뢰부설함도 2016년까지 해군에 납품하기로 했지만 시운전이 늦어지면서 납품을 못함
- 3) 차기상륙함(LST-II, 천왕봉급) 2번함도 마찬가지다. 현대중공업은 차기상륙함을 지난해까지 해군에 인도하기로 했지만 공정이 지연되면서 인도시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
- 1+3)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해군에 인도시키지 못하고 있는 3척의 함정에 대한 지체상금만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대우조선해양도 214급 잠수함(SS-II) 6번함을 지난해까지 납품하기로 했지만 시운전이 늦어지면서 해군에 납품을 못함: 이달내 214급 잠수함을 납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확실
- STX조선해양은 유도탄 고속함(PKG)인 17번함을 건조했지만 2013년도에 경남 창원시 조선소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
- : 결국 STX조선해양은 고속정을 다시 건조하면서 제작비 400억대와 지체상금 400억원을 피할 수 없는 처지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LNG: LNGBV, DF엔진

▲ 또 Rig 용선 계약 2개 추가한, Transocean 시황 바닥 느낌 피력

- 7월 fleet status report 이후, 추가로 2건의 용선 계약 체결
- 1) Deepwater Nautilus는 Shell과의 17년 용선을 마치고 작년 10월 말레이시아로 이동해있다가
- 최근 알려지지 않은 아시아 고객과 4개의 유정 시추 계약을 따냄: 4Q17 작업 시작
- 과거 Shell과의 dayrate는 \$456천/일이었는데, 이번 용선 dayrate는 당연히 알려지지 않음
- 2) Paul B Loyd는 2018년4월부터 Hurricane Energy와 2개 유정 + 용선 2개, 영국 Lancaster 필드
- : 현재 영국 북해에서 BP와 6월부터 2개월 단기 용선 중
- = Transocean의 vice president는 바닥을 통과(moving off bottom)하는 느낌이라고 설명하며, 지난 지난 3개월은 아주 바빴다고 언급
- Transocean은 올해 누적 12건의 \$221m 계약을 따냄 & 향후 18개월간 60여개의 드릴링 프로그램을 포착하고 있다고 주장

△ Atwood → Kosmos, 시추선 용선 공급

- Atwood는 미국 독립 E&P사 Kosmos Energy와 북서\_아프리카에서 최소 1개의 well 시추 작업을 따냈다고 밝힘: 최대 6개 유정 시추 용선
- Kosmos는 JV BP와 wildcat drilling program을 진행 중: Senegal의 Tortue 유정
- Atwood는 라이벌 Ensco와의 합병을 준비 중

▶ LNG

△ Tangguh Train 3 확장에 따른 LNG선 신조 협의 시작

- BP의 인도네시아 Tangguh Train3 확장에 따라 LNG선 타입 등에 대한 초기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함: 척수나 선박 종류에 대해서는 불투명
- 현재 7.6MTPA의 Tangguh LNG는 Train3의 3.8MTPA를 추가해 11.4MTPA까지 증설
- 3.8MTPA에 맞춘 LNG선 발주를 준비 중이지만, 대다수 물량은 인도네시아 내수 및 인근 지역 수출이어서 발주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거나, 심지어 없을 수도 있다는 관측
- 3.8MTPA의 75%는 인도네시아 국영 전기회사 PLN이 매입: 가스화력발전용으로 사용 & 중국 수출

△ Kogas, 해외 FSRU 파트너 물색

- KOGAS는 이미 해외 한 회사와 agreement를 체결하고 여러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 수 많은 FSRU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인데, 5~6개 정도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힘

↑ (7월5주) △ Kogas, 해외 FSRU 시장 진출

- KOGAS는 H-Line, 팬오션, 현대LNG, SK해운, 대한해운과 팀을 이뤄
- 해외 LNG FSRU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힘
- 현재 80여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30여개의 FSRU가 가동 중

업황

△ Polaris VLOC 추가로 수리조선소로 입장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에 따르면 Polaris의 VLOC 개조선들이 추가로 중국에서 repair에 들어간 것으로 짐함
- Polaris의 VLCC-to-VLOC 개조선 18척 모두, KR, LR 선급 휘하에서 안정 점검 중

▽ STX조선, 올해 4번째 신조수주

- 올해초 우림해운과 11,200k 소형 케미컬선 3척으로 첫 수주, 그리고 삼봉 corp과 비슷한 선형 2척으로 두번째 계약을 따냈고
- 이후 OceanGold와 50k 2+2척으로 세번째 신조 본계약. 비슷한 시기 Golden Energy의 MR탱커는 아직 LOI 상태
- 이번 Socatra의 MR 2+2척은, STX의 올해 4번째 신조 수주

한국 조선업 수주설

▼ Clarksons 신규 수주 업데이트

@지난주 없음

N/A

▼ 신조 발주설(뉴스 단계)

△ VALE, 12척 VLOC 신조 발주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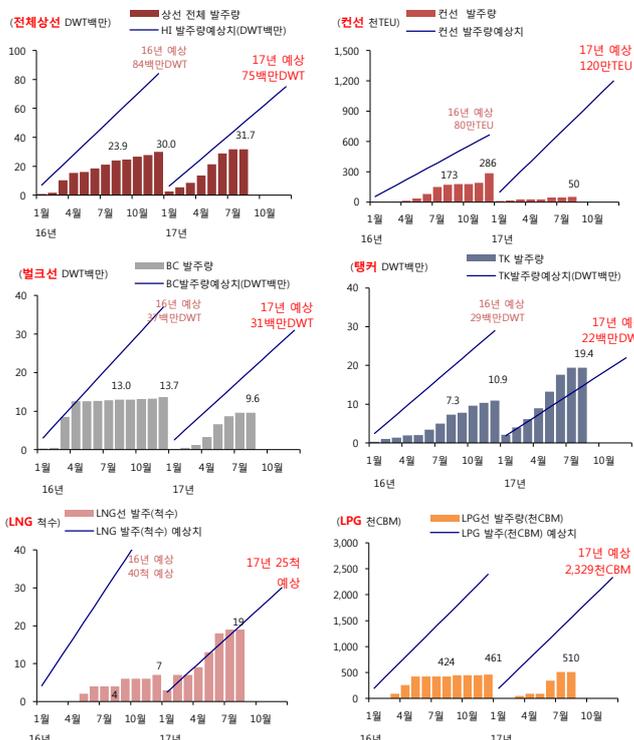
- VALE는 12척의 COA 기반, 교체 발주를 개시
- 몇몇 선사(10개)에게만 입찰초청: ICBC Financial Leasing, China Merchants Energy Shippng, VLOC Maritime Holdings, Choina Ore Shipping, Polaris Shipping, Korea Line Corp, Glovis, Berge Bulk, Sinokor Merchant Marine, Anagel Maritime, John Angelicoussis임
- VALE는 장기 50척의 노후 VLCC2VLOC를 교체 희망
- 320k~365k DWT, gas-ready, TIER III 적용 스펙
- 각 선사들은 12척 전체 또는 일하는 척수로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구조
- VLOC를 건조가능한 조선사는 한정적인데 각 선사는 이 조선사들과 짝을 맺어 입찰에 응하는 구조이며
- 일각에서는 일본이나 한국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 조선사들의 우위를 점함

▲ Socatra → STX조선, MR 2+2척

- Socatra가 6년만에 신조 발주: MR 탱커 선대확대를 위해서 중국과 한국에 LOI를 체결
- 한국의 STX조선과 2019년 인도 MR탱커(Tier III 스펙) 2+2척과 중국은 Jinling SY인데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음
- STX와 Jinling 모두 신조 계약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음
- Socatra는 2011년 SPP에 MR탱커 2척을 발주했지만, 최종 1척이 인도된 것으로 집계됨
- Socatra는 MR탱커 7척을 포함 총 13척을 보유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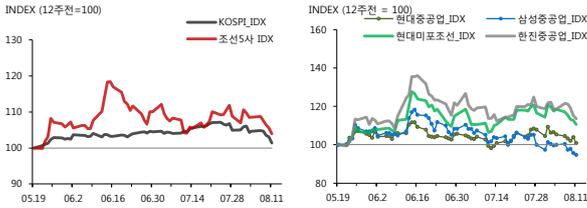


▶ 신조 발주 내역 - 한/중/일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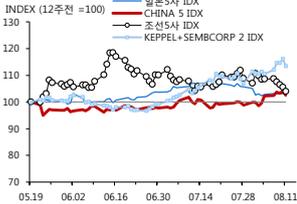
국가	조선사	계약일	발주 국가	발주처	Type	크기	인도	척수		
<b>17년07월3주</b>										
BIG6	STX SB (Jinhae)	17.7.21	한국	Woolim Shipping	PTK	11k DWT	2019	1		
				Sambong Corp.	PTK	11k DWT	2019	1		
중국	Dalian Shipbuilding	17.5.1	유럽	Maersk Tankers	PTK	115k DWT	2019	4		
	Jinglu Shipyard	17.7.14	중국	Rongcheng Xinrun	PTK	12k DWT	2019	1		
	Wuhu Shipyard	17.7.15	중국	Zhonghui Shpg	BULK	61k DWT	2019	1		
	Jiangsu New Hantong	17.4.1	중국	HTM Shipping Co. Ltd	BULK	82k DWT	2018~2019	2		
	Chengxi Shipyard	17.6.9	한국	Korea Line	BULK	81k DWT	2019~2020	2		
		17.5.1	중국	RGL Shipping	BULK	82k DWT	2019	2		
일본	Tongfang Jiangxin SB	17.4.1	아시아	Fountain Marine	BULK	82k DWT	2019	2		
				Tsinghua University	OTHERS	0k LOA	2018	1		
				Saiki Hvy. Ind.	유럽	M/Maritime	BULK	37k DWT	2019	2
<b>17년07월4주</b>										
BIG6	Daewoo (DSME)	17.7.11	북미	Excelerate Energy	LNG	138k cum	2018	1		
중국	Shanghai Waigaoqiao	17.6.15	유럽	Oceanbulk Maritime	BULK	208k DWT	2019~2020	4		
				CSSC Offshore Marine	유럽	TORM A/S	PTK	50k DWT	2019	4
중국	Jiangsu New YZJ	17.7.17	Unknown	Unknown	BULK	82k DWT	2018~2019	4		
				Unknown	유럽	Great Wave Nav.	BULK	180k DWT	2019	3
일본	Kitanihon Zosen	17.5.1	일본	MOL Chemical Tankers	PTK	35k DWT	2018~2019	4		
				Usuki Zosensho	일본	Shokuyu Tanker Co.	PTK	13k DWT	2019	1
				Oshima Shipbuilding	17.4.1	일본	NYK Bulk & Projects	BULK	56k DWT	2018~2019
<b>17년08월1주</b>										
BIG6	Hyundai HI (Ulsan)	17.7.31	유럽	Vitol Group	LPG	84k cum	2019	2		
중국	Jiangsu New YZJ	17.7.17	유럽	Evalend Shipping	BULK	82k DWT	2018	2		
일본	Namura Shipbuilding	17.8.1	유럽	Pleiades Shpg. Agcy.	BULK	85k DWT	2019	2		
<b>17년08월2주</b>										
민영	Zhejiang Ouhua SB	17.8.4	유럽	Cape Shipping	CONT	3k TEU	2019	2		
				Xiamen Shipbuilding	17.5.1	유럽	Siem Car Carriers	PCTC	8k Cars	2019
일본	Miura Zosensho	17.5.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2k DWT	2018	1		
				Unknown Japanese	BULK	1k DWT	2018	1		
		17.4.1		Fuji Kaiun	BULK	2k DWT	2018	1		
				Taiyo Kisen	BULK	6k DWT	2018	1		
	Kanrei Zosen KK	17.5.1	일본	Unknown Japanese	PTK	5k DWT	2018	1		
	Shin Kochi Jyuko	17.4.1	일본	Mitsui & Co	BULK	38k DWT	2018	1		
				Dowa Line Co Ltd	BULK	15k DWT	2018	1		
		Unknown	Unknown	Unknown	BULK	38k DWT	2019	1		
	Sumitomo (Yokosuka)	17.5.1	아시아	Unknown Singapore	TK	112k DWT	2019	2		
	Naikai Innoshima	17.4.1	Unknown	Unknown	PTK	19k DWT	2019	1		
Kawasaki HI Kobe	17.7.4	일본	Government of Japan	FERRY	#VALUE!	2020	1			
Kanda Zosensho	17.4.1	Unknown	Unknown	BULK	7k DWT	2018	1			
				RORO		2019	1			

Peer Group 등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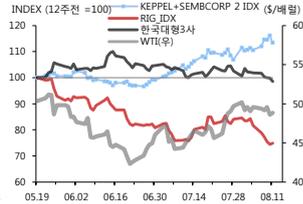
▶ 한국 조선 대형3사, 중형3사 INDEX



▶ 조선업 한중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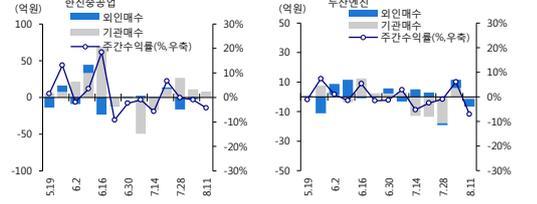


▶ 유가 VS 리그선주, 싱가포르 Offshore 제작사



조선 수급

▶ 조선6사 수급



국내 보도

▶ 현대중공업 보도

▷ 하이투자증권, 몸값 낮추니 금융권 러브콜

<http://nr.li/5D4vu>

현대중공업이 지난 2분기 하이투자증권의 손상차손을 2828억원 인식하면서 장부가를 4534억 원으로 낮춤  
7월 관련업계에 따르면 DGB금융지주와 IMM PE가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검토 중  
2016년 7월 현대중공업그룹은 자구안 계획에 따라 하이투자증권 매각을 공개경쟁 입찰 형식으로 진행했으나 잠정 중단: 매각이 무산된 배경은 결국 가격이 문제  
현대중공업이 하이투자증권을 7,500억 원에 인수했고 이후 유상증자 참여분까지 합하면 총 투입 비용은 1조 1100억 원이 넘어, 매각 희망가격이 높았음  
2017년 4월 현대중공업그룹이 지주사 전환에 본격 착수하면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각 박차  
현대중공업이 최근 하이투자증권 손상차손을 2,828억 원 인식하면서 기존 7,362억 원이었던 장부가를 4,534억원으로 낮춘 것은, 매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

▶ 삼성중공업 보도

▷ 삼성중, 공모채 만기대응...전방위 조달

<http://nr.li/OPzU5>

최근 창립 후 첫 사모사채를 발행한 데 이어 전자단기사채(전단채-STB)를 통한 유동성 확보 방안도 마련  
당장 9월 2000억원 어치의 공모채 만기가 기다리고 있어 사모 조달은 더욱 늘어날 전망  
전단채는 1500억 원, 사모채는 600억 원 어치가 발행: 현재 전단채 잔액은 없지만 5000억원 한도를 설정해 유사시 조달 채비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만 2조6000억 원: 2012년과 2015년 발행된 2000억 원, 5000억 원 규모의 공모채 만기도 오는 9월, 내년 2월로 각각 예정  
자금 수요는 계속 이어질 전망

▶ 대우조선해양 보도

N/A

▶ 기타

▷ STX중공업, 새 주인 찾을 수 있을까

<http://nr.li/kTAQI>

STX중공업의 사업영역은 기자재 제조 사업과 플랜트 설계·조달·시공(EPC) 사업 두 가지  
매각 측은 STX중공업의 사업영역 가운데 환경 플랜트 분야의 성장성을 투자포인트로 내세움  
실제 한국전력은 5년간 7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을 50% 이상 줄이기로 하는 등 산업계에선 환경플랜트 투자 확대  
환경플랜트는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을 걸러내는 설비를 말하는데,  
국내에선 STX중공업 외에 KC코트렐과 두산중공업, 한라산업개발 등이 관련 사업  
STX중공업 환경플랜트 사업부는 향후 5년간 약 9000억 원의 수주액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  
STX중공업의 계속기업가치는 4237억 원, 청산가치는 4022억 원: 매각가가 4000억 원 내외가 될 가능성이 크단 얘기  
STX중공업의 2016년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1559억 원 발생해 전년 대비 적자 전환: 매출액은 41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8% 감소했고 당기순손실은 6314억 원으로 적자가  
2016년 7월 22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올해 1월 13일 회생계획 인가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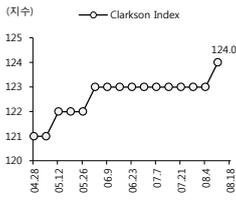
▷ STX엔진 매각 인수적격 후보 8곳 이르면 9월말 본입찰

<http://nr.li/FNS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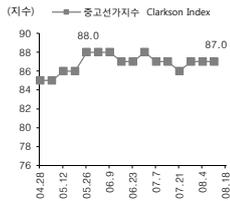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9곳 중 1곳이 탈락  
다음주부터 예비심사에 돌입해 9월 중순까지 진행: 9월말 본입찰을 진행한다는 것이 매각주관사의 계획  
이번 매각은 산은(34.7%)과 채권단들이 보유한 지분 전량 87.04%가 대상  
일부 LOI를 제출한 원매자들은 통매각이 아닌 각각 민수부문, 방산부문 등만 분리 인수한다는 의견  
: 하지만 매각주관사는 현재 시점에서 통매각을 제외한 다른 매각 방식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  
또 일부 원매자들은 STX엔진 시가총액 4000억원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LOI를 제출해, 가격이 본입찰 때 관건  
STX엔진이 육군, 해군 등 주요 군 시설에 엔진과 전자통신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해경 함정에 탑재되는 고속엔진을 생산  
방산 사업 비중이 높은 만큼 안정적인 캐시카우(현금)을 기대하고 들어온 원매자들이 많음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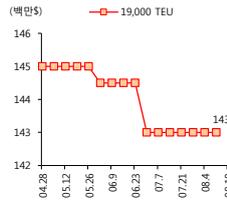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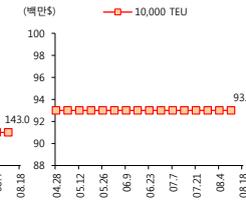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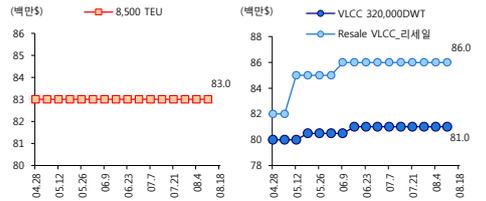
▶메가 울트라박스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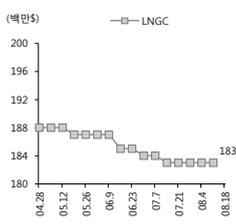
▶메가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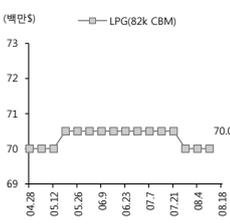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 8,500 ▶탱커 신조 vs 리세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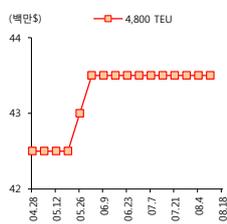
▶LN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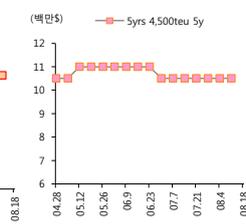
▶LP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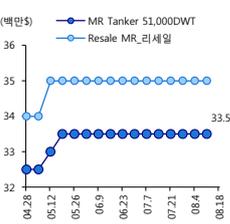
▶컨테이너선 - 신조선가 4,800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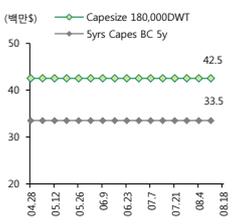
▶컨테이너선 - 중고선가 4,500teu



▶MR탱커 신조vs리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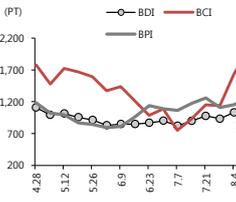


▶Capesize 벌크선 - 신조,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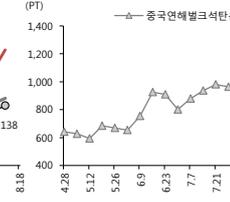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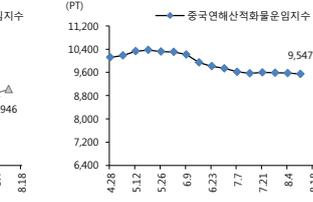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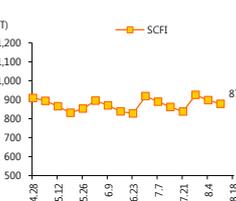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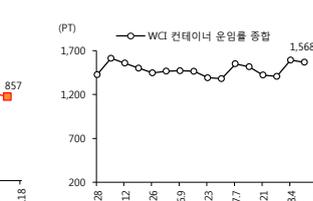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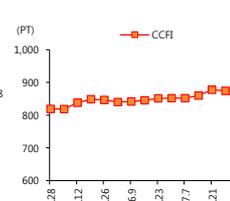
▶탱커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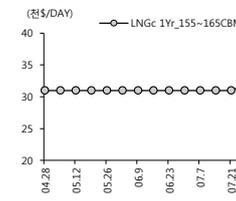


▶컨선 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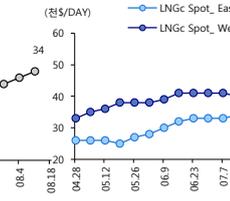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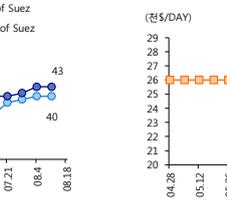
▶LNG선 1yr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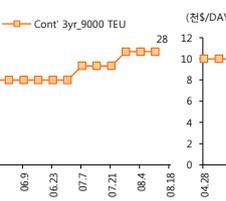
▶LNG선 S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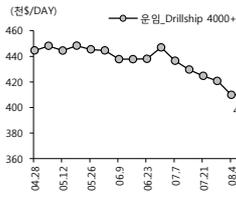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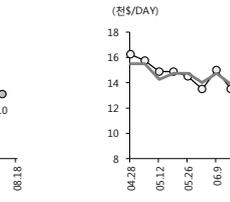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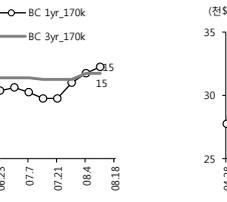
▶드릴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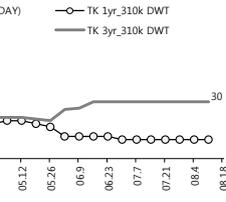
▶벌크선 - 케이프



▶탱커 - VLCC



▶탱커 - M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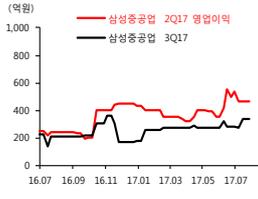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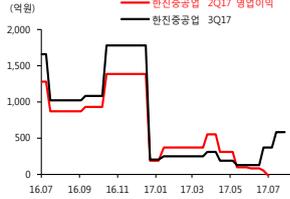
▶ 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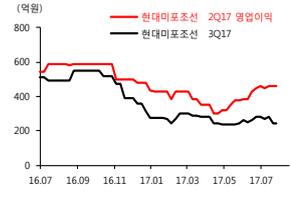
▶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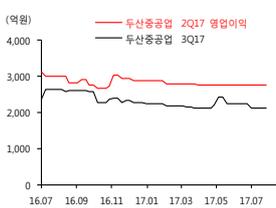
▶ 한진중공업



▶ 현대미포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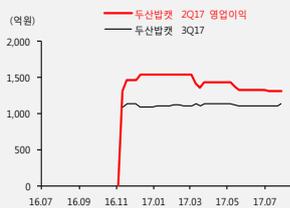
▶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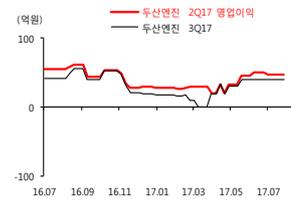
▶ 두산인프라코어



▶ 두산발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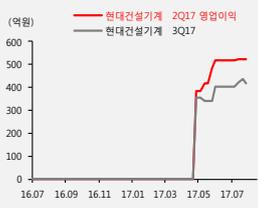
▶ 두산엔진



▶ 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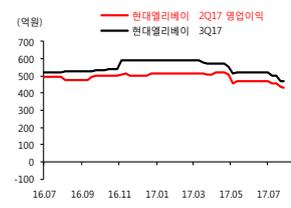
▶ 현대건설기계



▶ 현대로템



▶ 현대엘리베이터



▶ LS산전



▶ 성광벤드



▶ 태광



▶ 하이록코리아



출처: Dataguide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17 EPS(원)								Chang(%)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07.15	17.07.22	17.07.29	17.08.05	17.08.11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17PER	증가
조선	현대중공업	10,996	10,603	13,362	5,797	6,100	6,241	6,478	5,812	5,985	3%	-2%	28.2	168,500
	삼성중공업	235	257	307	298	274	271	277	270	270	-9%	-1%	40.3	10,900
	현대미포조선	5,382	4,498	3,914	4,232	6,383	6,356	7,369	8,676	9,201	117%	44%	11.3	104,000
	한진중공업	454	233	14	-211	-103	-123	-123	-123	-123	적지	적지	-34.4	4,240
두산	두산중공업	1,798	1,716	1,490	1,511	1,411	1,425	1,425	1,061	1,064	-28%	-23%	17.2	18,650
	두산인프라코어	809	753	796	798	829	832	832	870	878	10%	6%	9.7	8,480
	두산엔진	167	265	148	178	193	193	198	188	174	-2%	-10%	22.5	3,925
기계	현대건설기계	0	0	0	27,395	29,191	30,679	30,732	32,313	31,298			12.3	385,000
	현대일렉트릭	0	0	0	27,046	27,560	28,368	28,256	26,902	27,300			11.6	316,000
	LS산전	3,382	3,458	3,596	3,664	3,674	3,706	3,862	3,862	3,862	5%	5%	15.2	58,800
	현대엘리베이터	5,703	5,556	5,580	5,325	5,326	5,351	5,351	4,991	4,926	-7%	-7%	10.4	51,300
방산	현대로템	669	756	718	650	614	608	523	523	523	-19%	-15%	35.6	18,600
	한국항공우주	2,646	2,622	2,520	2,503	2,422	2,321	2,200	2,200	2,200	-12%	-9%	17.6	38,650
	한화테크윈	2,468	2,380	2,270	2,255	2,140	2,037	1,964	1,964	1,964	-13%	-8%	19.8	38,900
피팅	LG넥스원	3,917	3,845	3,774	3,733	3,619	3,501	4,557	4,557	4,557	22%	26%	17.7	80,800
	성광벤드	198	49	-27	-83	-75	-82	-82	-82	-93	적지	적지	-102.3	9,530
	태광	206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0%	0%	50.0	9,440
	하이록코리아	1,888	1,895	1,913	1,909	1,896	1,837	1,837	1,837	1,874	-2%	-1%	12.3	23,050

그룹	종목	2017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07.15	17.07.22	17.07.29	17.08.05	17.08.11	2017	2018	2017 PBR	2018 PBR
조선	현대중공업	231,952	229,672	310,679	212,155	207,239	207,352	208,977	205,482	205,482	3%	2%	0.8	0.8
	삼성중공업	17,381	17,336	18,160	18,763	18,776	18,776	18,733	18,711	18,711	1%	1%	0.6	0.6
	현대미포조선	109,117	108,036	113,387	112,406	116,105	116,073	118,081	119,596	119,596	8%	3%	0.9	0.9
	한진중공업	11,120	10,803	10,278	8,796	8,833	8,810	8,810	8,810	8,810	-1%	4%	0.5	0.5
두산	두산중공업	31,654	31,023	31,062	31,005	30,765	30,765	30,765	30,118	30,164	4%	6%	0.6	0.6
	두산인프라코어	11,033	10,481	10,478	10,514	10,622	10,622	10,622	10,668	10,618	8%	10%	0.8	0.8
	두산엔진	7,897	7,640	7,833	7,877	7,920	7,920	7,945	7,949	7,956	2%	2%	0.5	0.5
기계	현대건설기계	0	0	0	231,368	231,665	231,665	231,741	234,173	232,458	13%	15%	1.7	1.7
	현대일렉트릭	0	0	0	232,450	232,450	232,450	232,690	225,780	225,780	12%	14%	1.4	1.4
	LS산전	38,873	38,912	39,174	39,138	38,938	38,874	38,960	38,960	38,960	10%	11%	0.0	0.0
	현대엘리베이터	38,058	41,713	38,291	37,757	37,757	37,757	37,757	37,050	36,968	13%	14%	1.4	1.4
방산	현대로템	16,920	17,125	17,174	17,079	17,042	17,035	16,964	16,964	16,964	3%	5%	1.1	1.1
	한국항공우주	16,614	16,591	16,330	16,307	16,195	16,045	15,869	15,904	15,904	14%	16%	2.4	2.4
	한화테크윈	48,348	48,393	45,533	45,802	45,502	45,387	45,234	45,234	45,234	4%	6%	0.9	0.9
피팅	LG넥스원	31,536	31,343	31,499	31,402	31,296	31,150	31,956	31,956	31,956	14%	13%	2.5	2.5
	성광벤드	16,603	16,528	16,529	16,554	16,540	16,540	16,540	16,540	16,540	-1%	1%	0.6	0.6
	태광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	2%	0.6	0.6
	하이록코리아	23,495	23,983	24,035	24,001	23,849	23,776	23,776	23,776	23,849	8%	8%	1.0	1.0

출처: Dataguide

키 차트

▶ 피팅3사의 2Q17 잠정 실적 발표: 하이록코리아만 YoY 매출 성장하고 opm도 19.6% 기록

<표> 동국S&C 2Q17 Review

	2Q16	3Q16	4Q16	1Q17	2Q17P@	y-y	q-q 컨센서스@	GAP(@/B-1)	2016	2017E	2018E	2019E	
매출액	106.5	99.0	90.0	105.1	99.4	-6.6%	-5.4%	122	-18.5%	384	239	264	0
영업이익	10.1	7.4	-1.0	8.8	4.1	-59.4%	-53.5%	11	-62.2%	26	27	31	0
세전이익	11.1	5.5	-3.9	6.4	5.7	-48.7%	-10.3%	11	-48.3%	22	30	35	0
순이익	8.1	3.8	-3.1	4.8	5.0	-37.8%	5.4%	8	-40.2%	16	0	0	0
영업이익률	9.5%	7.5%	-1.1%	8.4%	4.1%	-5.3%p	-4.3%p	8.9%	-4.7%p	6.7%	11.2%	11.7%	N/A
세전이익률	10.5%	5.6%	-4.3%	6.1%	5.7%	-4.7%p	-0.3%p	9.1%	-3.3%p	5.9%	12.7%	13.1%	N/A
순이익률	7.6%	3.8%	-3.4%	4.5%	5.0%	-2.5%p	0.5%p	6.9%	-1.8%p	4.2%	0.0%	0.0%	N/A

<표> 태웅 2Q17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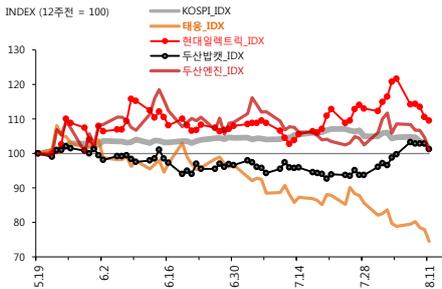
	2Q16	3Q16	4Q16	1Q17	2Q17P@	y-y	q-q 컨센서스@	GAP(@/B-1)	2016	2017E	2018E	2019E	
매출액	88.0	68.0	75.3	65.3	70.8	-19.5%	8.5%	69	2.6%	322	327	394	484
영업이익	4.0	5.4	0.2	3.5	-1.7	적전	적전	4	-142.1%	13	21	32	46
세전이익	5.7	1.5	3.8	1.1	1.9	-66.0%	77.9%	3	-35.4%	17	19	34	48
순이익	4.8	1.4	2.5	1.2	1.5	-68.9%	29.8%	2	-25.0%	14	15	28	40
영업이익률	4.5%	7.9%	0.3%	5.3%	-2.4%	-6.9%p	-7.7%p	5.8%	-8.2%p	4.0%	6.4%	8.1%	9.5%
세전이익률	6.5%	2.2%	5.0%	1.7%	2.7%	-3.7%p	1.1%p	4.3%	-1.6%p	5.3%	5.8%	8.6%	9.9%
순이익률	5.5%	2.1%	3.3%	1.8%	2.1%	-3.4%p	0.3%p	2.9%	-0.8%p	4.3%	4.6%	7.1%	8.3%

<표> 씨에스윈드 2Q17 Review

	2Q16	3Q16	4Q16	1Q17	2Q17P@	y-y	q-q 컨센서스@	GAP(@/B-1)	2016	2017E	2018E	2019E	
매출액	109	52	75	67	83	-24.2%	24.5%	70	18.1%	311	301	340	377
영업이익	2	-4	-27	5	11	534.9%	123.7%	9	33.5%	-24	33	40	43
세전이익	12	-6	-37	13	14	17.5%	4.9%	7	110.3%	-17	43	48	48
순이익	12	-7	-34	12	12	7.3%	5.0%	6	121.8%	-17	37	42	39
영업이익률	1.6%	-8.5%	-35.9%	7.7%	13.8%	12.1%p	6.1%p	12.2%	1.6%p	-7.6%	11.0%	11.8%	11.5%
세전이익률	10.7%	-11.8%	-49.6%	19.7%	16.6%	5.9%p	-3.1%p	9.3%	7.3%p	-5.4%	14.1%	14.0%	12.8%
순이익률	10.6%	-14.2%	-44.9%	17.8%	15.0%	4.4%p	-2.8%p	8.0%	7.0%p	-5.5%	12.3%	12.3%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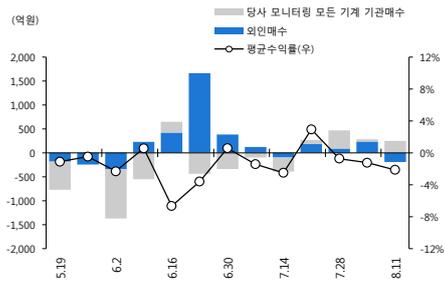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 당사 기계 선호주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당사 모니터링 모든 기계의 주간 수급과 시가총액 증감률



기계 업종 뉴스

탈원전

▶ 탈원전 플랜B...당청, 출구전략 검토

<http://lnr.li/7WIAS>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논의에서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대신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온 오래된 원전 1~2기를 폐로하는 방안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탈원전 정책의 방향은 맞지만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

원전의 안전 기술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현재 지어지고 있는 원전의 안전성이 가장 높음

특히 신고리 5·6호기에 적용되는 3세대 원자로 APR 1400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평가받는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 인증 심사 통과 문제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2030년까지 수명이 다하는 원전 12기를 재가동하지 않고 폐로하는 방식으로 원전을 줄여나간다고 밝힌 바 있음

현재 원전 중에서 고장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곳은 전남 영광의 한빛 4호기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한빛 4호기 방호벽에 배면부식이 발

▶ > 靑 "당청, 신고리 원전 출구전략 논의한 적 없다"

<http://lnr.li/6T0pD>

신고리 5·6호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고, ...

... 대신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온 노후원전 1~2기를 폐로하는 내용의 '원전 출구전략'이 당청간 논의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 '청와대 관계자는 "당에도, 관련 부처와 청와대에도 체크했지만 당청이 원전 관련 출구전략을 논의한 적 없다"고 밝힘 잘못된 사건이 보도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산업부, 탈원전TF 만든다

<http://lnr.li/GzHMJ>

산업통상자원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 실무를 담당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핵발전의 단계적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뼈대로 한 탈원전 정책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정책에 대한 소통·홍보 업무를 담당

실무자는 현재 원전 정책 전반을 맡는 에너지지원실 산하에 원전산업정책,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전력 부문에서 파견될 것으로 보임

국책연구기관 등에 에너지 관련 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계획도 검토 중

## ESS & 중전기

### △ 202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 ESS 설치

<http://lnr.li/SSh08>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대폭 늘리고 202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ESS(에너지저장장치)설치를 의무화할 방침 (재)녹색에너지연구원(사)에너지밸리포럼 주최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학연관 초청 간담회' 국정기획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김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신정부 에너지정책과 국정 운영 방향을 소개 2020년에는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화, 2022년까지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쇄할 예정 정부의 친환경미래에너지 발굴 육성 로드맵을 보면 우선 1단계로 올해와 내년의 풍력 등 계획입지제도와 소규모 신재생사업에 대한 전력 고정가격매입제도를 도입 2단계로 2020년 하반기에 RPS 의무비율을 28% 상향 조정해 ... ...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공공기관 ESS설치 의무화, 스마트미터(AMI) 전국 설치를 마칠 계획 3단계로 2022년까지 에너지 자립도시 시범모델로 조성할 방침

### ▷ 최대 2% 포인트 낮아진 전력 예비율...탈원전 신호탄 되나

<http://lnr.li/1W5UK>

발전기 고장에 대비한 적정 수준의 전력 설비 예비율을 최대 2%포인트 낮출 수 있다는 전망 11월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공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설비계획 초안에 따르면 2030년 적정 전력설비 예비율 수준은 20~22%로 전망 : 적정 예비율이 20%까지 낮춰진다면 7차 계획 대비 최대 2%포인트 낮아짐 예비율이 1% 포인트 하락하는 경우에는 약 1000MW 발전소 1기를 건설하지 않아도 됨 원전은 예방정비 고장정지로 1년에 약 20% 가동정지되고 액화천연가스(LNG)는 1년에 약 12% 가동정지되는 점을 감안하면 원전을 덜 짓고 LNG가 늘어나면 그만큼 예비율도 낮아진다고 설명 이날 심의위가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가 2030년까지 62.3GW까지 늘어날 전망 이 가운데 태양광·풍력 등은 48.6GW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 LS산전, 가장 크게 웃었다

<http://lnr.li/9rpxx>

LS산전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지난해 상반기보다 크게 증가하며 3사 중 가장 뛰어난 실적을 기록 LS산전은 올 상반기에 매출액 1조1477억원, 영업이익 796억원: 지난해 상반기보다 매출액은 11.8%, 영업이익은 19.3% 각각 늘어난 수치 : 주력 사업인 전력과 자동차 사업이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한 가운데 인프라 사업과 자회사 실적도 동반 호조 지난해 빅 3 중 가장 뛰어난 실적을 기록했던 효성 중공업PG는 매출액 1조333억원, 영업이익 518억원: YoY 매출액은 17%, 영업이익은 58% 하락 : 작년 실적이 워낙 좋았던 탓도 있지만, 초고압 변압기와 차단기 등 고수익 제품의 판매 이월이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 현대일렉트릭은 수익성 위주의 선별수주와 일시적 제품 인도 지연으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구조조정 등 사업체질 개선으로 견조한 수익성은 유지했다는 평가

## 건설기계

### ▷ "중반 시장이더냐"...두산인프라 '아-태' vs. 현대건기 '러' 서 기세

<http://lnr.li/66s1o>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 모두 신중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늘고 있음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APEM)에서도 판매 회복 2분기 아태 지역에서만 매출 3,026억원을 올려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2분기에만 503대의 건설기계를 판매해 전년 동기 227대 대비 121.6% 증가 : 상반기 아태 지역 누계 매출은 6,129억원으로 유럽(EMEA) 지역의 5,621억원을 넘어설 것, 지난해 아태 매출은 9180억원으로 유럽(1조602억원)보다 작음 현대건설기계는 러시아와 인도 지역의 매출이 호조 두 지역의 2분기 매출은 각각 513억원, 740억원으로 전년 동기 116억원, 500억원 대비 342.2%, 48% 늘 > 2분기 실적발표 자료 기반, 과거 팩트 정리 뉴스입니다.

### △ 두산인프라코어 '중국굴기'... "중국 환경기준 변화 맞춘 제품 개발"

<http://lnr.li/Mo5kP>

향후 5년 간 중국 시장만을 타깃으로 한 제품을 적극 개발·출시하는 등 현지에 맞춘 전략으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섬 :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를 통해 현지 시장 점유율 '톱 3'을 목표로 두산인프라코어 중국사업부 임직원은 중국 엔타이에서 상반기 비즈니스 회의를 개최 : 향후 5년 간 굴삭기 제품의 레이아웃과 기능 등을 현지화해 개선·개발하기로 최근 중국 시장만을 타깃으로 80톤급 초대형 제품을 출시하는 등 현지 시장 공략에 적극: 기존 고객 주문에 따라 70톤급까지 제작 중국도 굴삭기에 탑재되는 엔진의 배기규제를 티어3 수준으로 강화하면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이에 맞춘 제품을 출시

### ▷ 건설기계 중국시장 확대...중업체 아프리카 등 외연 넓히며 맞붙

<http://lnr.li/zXNGO>

중국공정기계협회에 따르면 6월 한 달 간 현지에서 두산인프라코어(514대)와 현대건설기계(206대)가 전년 동월 대비 판매량은 늘었지만 시장 점유율은 하락 중국 업체들은 시장점유율 52.4%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다시 50%대를 회복 국내 건설기계업체들은 중국 시장에서 중·대형 굴삭기 판매에서는 선전했지만 판매 비중이 높은 소형·미니 부문에서는 되레 점유율이 하락 → 6월 49.6%에 이어 48.1%로 50%를 하회 지난 2일 사니중공업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건설 중인 초고층 빌딩에 11대의 자사 콘크리트 기계를 공급 다른 중국 업체인 중원은 지난 5월에는 케냐 나이로비에 건설하는 초고층 빌딩에 투입될 타워크레인 등을 공급하기로 현지 업체와 계약

**두산그룹 & 두산중공업**

**△ 남해 IGCC발전소, 타당성 검토 용역착수**

<http://nr.li/9I2Cr>

남해 IGCC 컨설사업의 참여기업인 4개사(포스코건설, 한국전력, 동서발전, 두산중공업)와 남해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 보고회: '용역 기간은 올해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이며 한국전력기술(주)에서 수행 남해 IGCC발전소는 2015년 7월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400MW가 반영 > 아마도 2018년이나 2019년의 두산중공업 수주POOL이 될 듯 합니다.

**▽ 두산중공업, 남양주 '두산 알프하임' 책임준공 우려**

<http://nr.li/3agZs>

두산중공업이 오는 11월 남양주 두산 알프하임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서는 가운데 두산중공업이 해당사업에 대해 이례적으로 '책임준공보증'을 한 사실이 드러나 업계 우려 지하 4층~지상 28층 총 2894가구 규모로 아파트 36개동과 테라스하우스 13개동으로 구성: 남양주 내 단일 단지로는 최대 규모며, 사업비는 약 5107억원 시행사는 경기도 성남에 소재한 부동산개발업체 RBDK: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5억1800만원, 직원 15명을 둔 중소기업 RBDK는 해당 사업비 마련을 위해 지난달 4800억원 규모 집단대출(신디케이션론) 약정을 맺고 자금을 확보 문제는 시행사가 신디케이션론을 일으키면서 두산중공업과 '책임준공보증'을 맺었다는 것 책임준공이란 시행사 부도 등으로 시공사가 공사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에도 약속된 시간 내에 공사를 책임지고 완료해야 하는 방식

**△ "콘크리트 구멍·부식" 한빛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 조기교체**

<http://nr.li/KXYal>

차기 계획예방정비 때 교체하려던 증기발생기를 이번 정비 기간에 조기 교체하기로 했다고 8일 밝힌 한빛원전은 4호기 격납건물 내부 철판 정비 문제로 이번 계획예방정비 기간(올해 5월~10월)이 계획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 4호기의 증기발생기는 전열관 재질(인코넬600)이 상대적으로 고온에 취약하고 부식되는 문제점이 발견돼 1년 6개월 후인 오는 2019년 초에 교체할 예정이었지만 2019년 예정인 3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와 중첩될 가능성이 커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가동 중 이물질이 발생해 교체 시기를 앞당기기로 함

**△ "생활하수로 전기 생산" 두산중공업, 영국 발전사업 수주**

<http://nr.li/Ma9Mg>

영국에서 생활하수로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 사업을 수주 영국 자회사인 두산엔퓨어가 현지 상수도사업자인 서번트렌트워터와 300억원 규모의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발전설비 공급 계약 두산엔퓨어는 두산중공업이 2012년 인수한 영국 수처리 전문업체 하수 슬러지란 하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 하수슬러지가 부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를 활용해 1메가와트(MW)급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설비 글로벌 수처리 사업 전문 조사기관인 GWI에 따르면 세계 수처리 시장은 올해 약 880조원에서 연평균 3%씩 성장해 2020년 약 940조원에 이를 전망

**기계들**

**△ 장병우 현대엘리베이터 사장 "3년내 세계 톱7 등극"**

<http://nr.li/Uhviz>

현대엘리베이터는 매출 1조 7588억원, 영업이익 1816억원 등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월 최대 생산량 2000대, 연간 생산량 2만대, 누적 생산량 20만대 돌파라는 기념비적 성과 흑자경영을 통해 지난 2012년 매각한 2500억원대 서울 연지동 현대그룹 사옥을 재매입에 나설 정도로 회사 재정상태가 뛰어난

**△ 한국카본, 탄소섬유 풍력 블레이드 소재 국산화**

<http://nr.li/XXafu>

국내 최초로 풍력 블레이드용 탄소섬유 프리프레그의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 (휴먼컴퍼티트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풍력발전기에 적용되는 탄소섬유 프리프레그 공급계약을 체결 실증단지에는 두산중공업의 풍력발전기 20기가 설치될 예정 한국카본은 두산중공업이 주관한 '탄소섬유 풍력 블레이드 개발 과제'를 올해 7월 완료했고 함께 과제에 참가한 블레이드 제조사 휴먼컴퍼티트와 3기에 적용되는 4억 6000만원 규모의 프리프레그 공급계약을 체결 탄소섬유는 저밀도, 고강성의 특성으로 일반적인 유리섬유 소재보다 대형화된 블레이드를 제작할 수 있어 에너지 수확 효율을 높임 이는 서남해안을 비롯해 전세계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풍속 지역에서 고효율의 풍력발전을 할 수 있게끔 해줌 아직 가격이 비싸고 개발 과정에서 고도의 복합소재 기술이 필요해 세계적으로도 대중화되지 않은 상태

**△ 씨에스윈드, 태국에 25.6억 상품 공급계약**

<http://nr.li/AeXND>

태국 Vestas Wind Systems A/S와 25억6000만원 규모의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공식 계약금액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0.8%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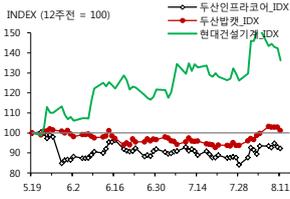
**△ 현진소재, 채권은행 반대로 물적분할결정 취소**

<http://nr.li/u4WU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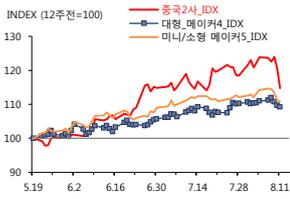
7일 채권은행의 반대로 지난 해 결정한 물적분할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 회사는 지난 해 2월 17일 기계가공, 조립, 열처리 사업부문의 분할을 결정한 바 분할하려는 사업부문은 금속소재산업 중 후처리부문: 사업부문 분할로 경영위험을 최소화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려 했으나 물적분할된 사업부를 한 가격에 특정인에게 매각해 회사의 이익을 몰아줄 수 있어 채권은행은 반대한 것으로 보임 현진소재는 현재 거래정지 상태: 관리종목인데 최대주주가 회사를 매각하려 했기 때문 지난 3월 이창구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 한프(옛 백산OPC)에 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등에 오르며 계약은 결국 취소 지난 5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 개선기간이 끝나면 현진소재는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결과와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 늦어도 오는 12월초에는 현진소재의 상장 유지 여부가 결정

건설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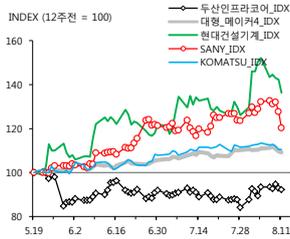
▶ 한국시장 상장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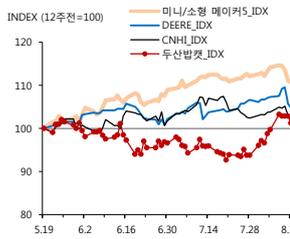
▶ 대형 vs. 미니/소형 vs. 중국



▶ 대형: 두산, 현중, 사니, 고마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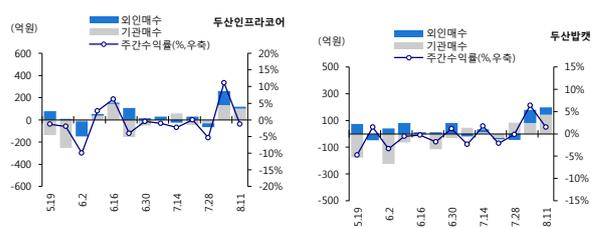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발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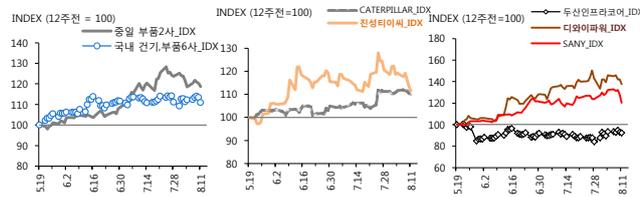


건설장비 수급

▶ 건설장비 부품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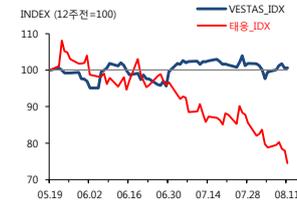


풍력

▶ 한국 풍력 부품5사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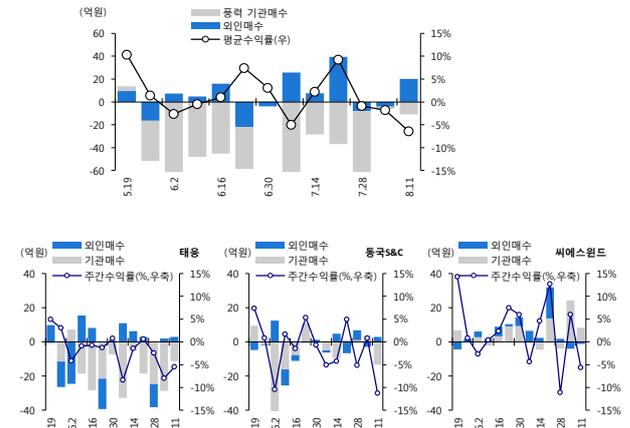


▶ 한국 풍력부품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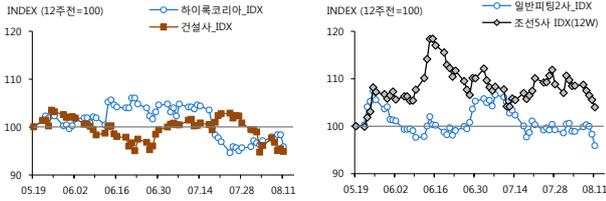
풍력 수급

▶ 풍력부품4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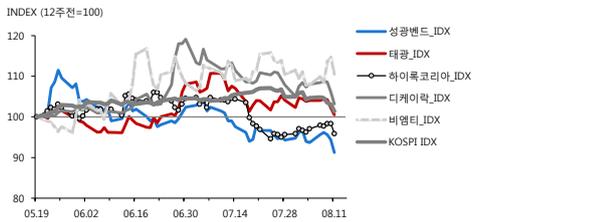


##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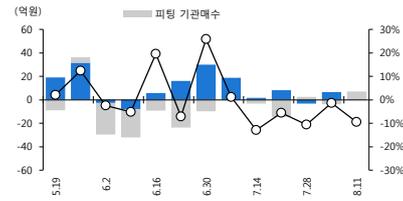
### ▶ 피팅 VS 전방1 건설



### ▶ 피팅 및 밸브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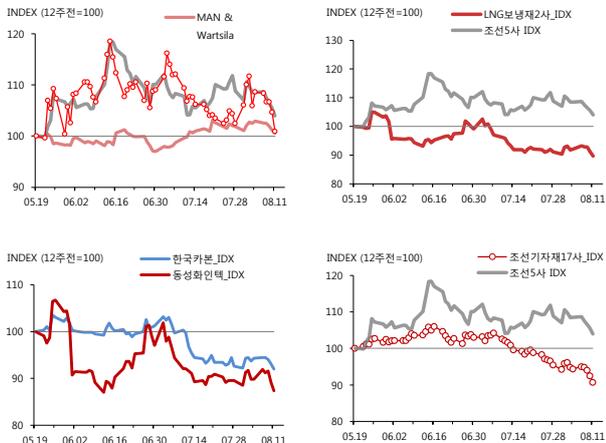


##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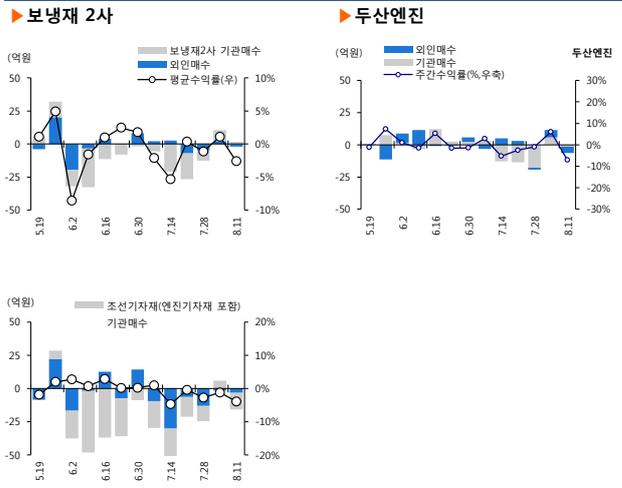


## 조선기자재

### ▶ 두산엔진 vs 조선5사 vs 해외 엔진 ▶ 엔진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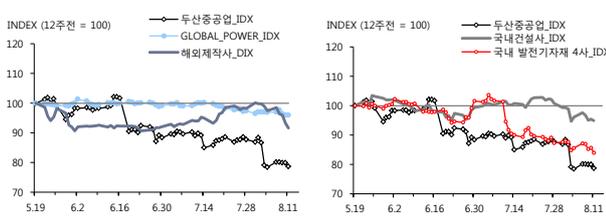


## 조선기자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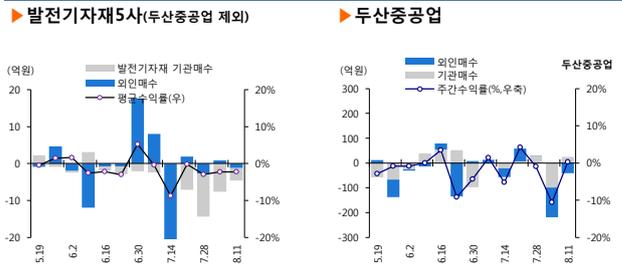


## 발전 및 발전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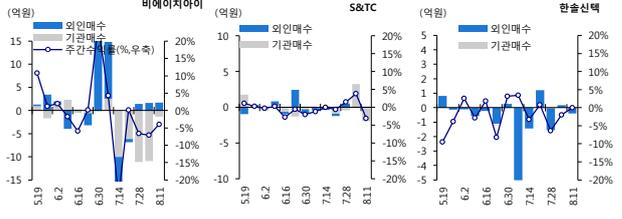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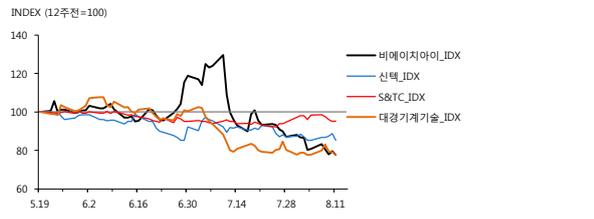
### ▶ 두산중공업 VS 해외 PeerGroup ▶ 한국EPC vs 두산중공업 및 발전기자재



## 발전업 수급



### ▶ 발전기자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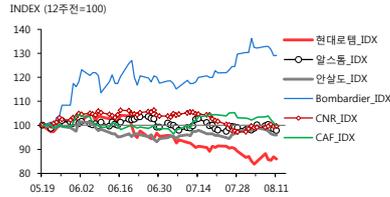


철도/승강기

▶ 철도 vs Global Peer



▶ 철도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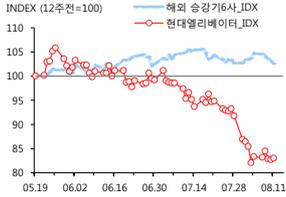


철도/엘리베이터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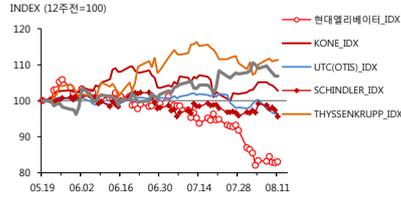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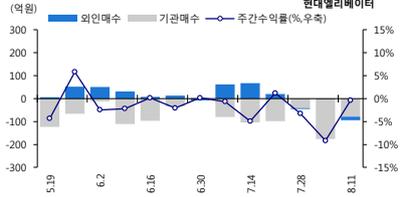
▶ 엘리베이터 vs Global Peer



▶ 승강기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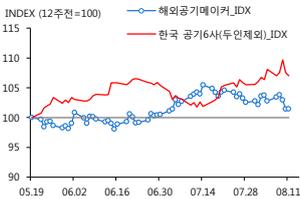


▶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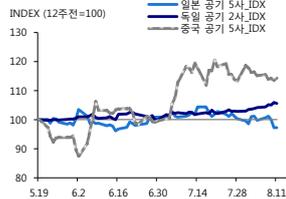


공작기계

▶ 두산인프라~한국소형6사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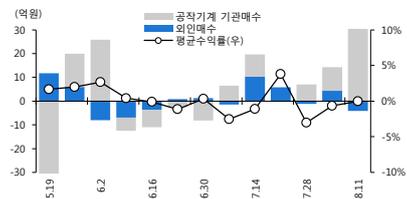


▶ Global Peer - 지역별



공기 수급

▶ 공작기계 부품 수급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당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최광식, 원민석)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명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자의건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율을 의미함.(2014년5월12일부터 적용)  
 -Buy(매 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7-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89.2 %	10.8 %	-